韓國 古典文學에 대한 基督敎的 眺望

박영희

ABSTRACT

For thousands of years before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the Korean people have formed and developed their culture with the tradition of paganisms such as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or Shamanism which have been unrelated with the Christian world view.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how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which has been constituted on the basis of the heathen outlook on the world, can share tangency with the Christian gospel. Furthermore, Christian perspectives on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in relation with the general grace of Christianity and then an analysis in the Christian respect with a definite research of the dualistic outlook on the world that has been revealed in the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re studied in this paper.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 수천년 동안 한국 민족은 기독교 세계관과는 무관한 儒敎, 佛敎, 道敎, 巫俗 등의 異敎的 傳統 속에서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켰다. 본 논문은 이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 고전문학이 기독교 복음과 어떤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먼저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이 가능한 성경적 근거를 一般恩寵과 연관시켜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二元的 世界觀을 구체적으로 살펴 기독교적 분석을 시도했다.

Ⅰ. 문제제기

1) 옛 전통과 새 사람의 충돌

인간은 본질적으로 宗敎的 存在이다. 인간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몸담고 있던간에 자신이 처한 文化環境 속에서 삶과 죽음, 선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다. 人類가 이룩한 모든 문화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 그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종교적 신앙과 만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수천년 동안 우리의 先祖들이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자손을 낳고, 죽어 몸을 누인 곳이다. 그들 삶의 모습, 추구했던 가치, 땀흘린 수고의 흔적은 有形, 無形의 文化的 遺産으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傳來의 문화유산과 정신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사용해 한평생

을 살다가 자손에게 남겨주고 간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새 사람은 동시에 옛 사람을 자기 안에 지닌 셈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옛 傳統은 어떤 것인가? 기독교가 傳來되기 이전 수천년 동안 우리 先祖 들은 기독교와는 무관한 異敎的 世界觀 속에서 문화를 形成하고 享有하고 發展시켰다. 儒敎, 佛敎, 道敎, 巫敎 등으로 지칭되는 전통종교는 政治, 經濟, 藝術, 慣習 등의 그릇에 담겨 표현되었고 우리의 精神史를 이끈 역동적 힘이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이전의 세상적인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터전은 여전히 옛 전통과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은 변했지만 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은 그대로이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현재까지 어떤 의미에서 基督敎와 傳統文化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교적 전통문화를 배척하며 성장했다. 기독교 전래 초기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儒敎的 階級主義에 대항했고, 祖上崇拜인 祭祀를 거부하다 殉敎를 당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통적인 異敎文化圈에서 改宗한 사람들이며,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교적 전통문화와 결별하는 信仰의 決斷을 내리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여전히 옛 전통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갈등한다.

2) 基督敎와 古典文學의 거리

韓國 古典文學은 그것이 漢文學이든, 古典小說이든, 혹은

口碑文學이든 간에 그 장르적 변별과는 상관없이 기독교와는 상반된 이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유교, 불교, 도교 등은 삼국시대 이래 상호 혼합 병존하였고 무교는 그 이전부터 표층적인 시대정신과는 무관하게 민중들의 의식세계에 자리잡고 전승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바탕은 선조들의 생활과 이상을 형상화시킨 고전문학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고전문학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고전문학 연구자는 종종 올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巫歌를 전공으로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기독교적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학에서 巫歌硏究에 대해 학위를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흥분하는 기독교인을 만난다. 고전문학 연구자는 당혹감에 빠진다. 학문적 입장에서 본다면 巫歌는 국문학의 중요한 연구영역이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본다면 무당굿의 辭說인 巫歌는 명백한 우상숭배이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궁극적인 존재를 찾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비기독교적인 반만년 역사와 문화'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복음의 빛이 없는 암흑의 세월로 부정되고 버려져야만 하는 것일까?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신앙적 명제와 '옛 것을 배우고 가치를 부여한다'는 학문적 명제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인가?

기독교계 안에 전통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문화와 기독교와의 접맥을 시도하는 일련의 연구도 있었다.[1] 이것은 기독교의 "土着化"의 문제로 제기

1) 윤성범의 〈誠의 神學〉(서울문화사, 1976), 유동식의 〈韓國宗敎와

되어 유교, 불교, 무교 등을 매개로 한 토착화 신학이 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檀君神話의 桓因, 桓雄, 檀君을 기독교의 三位一體와 연관시키는 식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유사성이 성립될 수 없는 것 사이에 유사성을 설정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混合主義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 뿐이다. 이처럼 기독교를 전래 종교나 문화에 融合시키려는 태도는 기독교와 전통문화의 거리를 좁히기 보다 오히려 그 거리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전문학 연구자는 대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터툴리안식의 태도를 취한다. 고전문학은 그 뿌리에서부터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것을 기독교와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설혹 그것을 연관시킨다 해도 학문적인 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고전문학과 기독교를 연관시키는 극소수의 연구가 있기는 하다. 許均이 중국여행 때 西學 관련 서적을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洪吉童傳〉이 기독교 博愛精神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거나,[2] 춘향을 박해받으며 재림예수를 기다리는 천주교도로 해석해 〈春香傳〉이 천주교인에 의해 지어졌을 것이라 추정하거나,[3] 심청이를 기독교적 구원자로 해석하는 연구가[4] 그 예이다. 정확한 영향관계가 검증되지

基督敎〉(대한기독교서회, 1965), 김경재의 〈韓國文化神學〉(한국신학연구소, 1983)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 李相寶(1972), "許均과 基督敎", 한국종교문학전집 1, 새시대문학사

3) 오윤태(1979), 韓國基督敎史(한국카톨릭사 2편), 혜선문화사, pp. 391－434

4) 하랄드 쿤츠(1973), "심청, 구원의 실현자", 안인길역, 문학사상 13, 문학사상사.

않은 채 외형상의 유사성만 가지고 양자간의 영향관계를 추정하는 이러한 연구는 그랬으면 하는 소망의 표현은 될지언정 학문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인 고전문학 연구자가 서 있는 자리이다. 이미 있는 길들은 갈 길이 아니다. 가야할 길의 첫걸음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과연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은 가능한가? 다시말해, 성경은 한국 고전문학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기독교와 고전문학 사이의 세계관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지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그 대답을 모색하는 시론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Ⅱ.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전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에 대해 칼빈은 "통치자요 보존자이시며 지구 전체와 그 각 부분의 움직임 일반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섭리로써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지극히 작은 것 참새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며 먹이시고 주관하신다"[5]고 말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人間事와 世上事, 모든 天地 萬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한국문화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었다. 물론 한국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살았다. 하지만 한국민족이 이 땅에

5) 로버트. E. 웨버(1984), 기독교문화관, 이승구역, 도서출판 엠마오, p. 157에서 재인용.

서의 삶을 살며 역사와 문화를 이루며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행14:16). 하나님께서 한국민족에게 아무 것도 증거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신 것은 아니었다(행 14:17).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탐구하게 하셨다(행 17:27,28).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사역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셔서 삼천리 금수강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게 하셨다(롬1:19,20).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한국민족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선물과 은사를 내려 주셨다(약1:17). 악에 빠져 멸망하지 않도록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각종 도덕과 법률이 생기게 하셨다. 칼빈은 이것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一般恩寵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한국민족이 완전한 암흑 속에 있도록 버려 두시지 않고 생활과 역사와 문화를 간섭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한국 역사와 문화가 완전히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罪性과 함께 선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이로 보건대 이방인 세계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런 啓示(나타나심)가 있음을 본다. 自然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에, 그들의 생애와 歷史속에, 政府와 정치가와 예술가들 가운데, 그들의 철학자들과 改革家들 속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啓示를 축소시키거나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이것은 소위 자연계시만으로 국한되어질 수 없다. 낙원의 전통, 가인과 그 후손들의 생애, 노아와 맺은 言約은 다 특수한 超自然的 根源을 갖고 있다. 超自然的 能力의 役事가 異方世界 안

에서 先驗的으로 아주 불가능하다거나 심지어 있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또한 自然과 歷史 속에서의 啓示는 결코 神德의 소극적 빛남(passieve uitstraling)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편의 적극적인 행동이다. 예수의 아버지는 항상 일하신다(요5:17). 하나님의 攝理는 神的이고 영원하며 어디나 臨在하는 能力(kracht)이다.[6]

이러한 一般恩寵은 비록 죄의 핵심을 없애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도 못하지만 마치 인간의 견식이 야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처럼 완전한 죄의 효력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7] 우리가 인간의 罪性과 인간이 이룩한 문화 속에 침투되어 있는 죄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마땅히 한국의 모든 전통문화는 파괴되고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福音은 인간이 땀흘려 노력해 성취한 모든 삶의 파괴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역사를 통해 이룩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문화의 위대한 파괴자가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그 문화규범을 따라 생활하고 히브리 문화와 언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은 그 자체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복음은 그것에 대항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취하고 자극한다. 한국의 문화 유산이 비록 이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여러가지 유용하고 선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탐구될 가치가 있다. 한국민족의 종교문화가 罪와

6) H.Bavink(1979), 一般恩寵論, 차영배 역, 총신대학출판부, p.18.
7) 아브라함 카이퍼(1974), 칼빈주의, 박영남 역, 세종문화사, p.163.

偶像崇拜로 물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전도자의 使信을 위해서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진리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8]

> 우리가 진정 의도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국민의 윤리적 정신적 유산을 점유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재능과 능력에 대하여 소유권을 선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는 인간의 사고구조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곤욕을 치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점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속시킨다.[9]

중요한 것은 기독교 복음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완전하게 재건하고 중생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문화의 모든 산물의 파괴자가 아니라 위대한 갱신자이며 재생자이기 때문이다.

Ⅲ. 고전소설에 나타난 이원적 세계관

1) 종교사상의 混在

흔히 한국의 종교사상은 混合的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유교, 불교, 도교, 무교의 사상은 병존하면서 한국 민족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9세기 신라의 崔致遠은

8) 루이스 벌꼽(1974), 基督敎神學槪論, 신복윤역, 성광문화사, p. 31.

9) J.H.바빙크(1987), 기독교선교와 세계문화, 권순태 역, 성광문화사, p. 77.

이미 한국의 민족종교가 儒佛仙 三敎가 襲合된 형태라는 것을 밝혔다.

> 崔致遠의 鸞郎碑序文에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玄妙한 道가 있다. 이를 風流라 하는데 이 敎를 설치한 根源은 仙史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사실 이는 三敎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과 接觸하여 이를 敎化하였다. 또한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는 父母에게 孝道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忠誠을 다하니 이는 魯나라 司寇의 趣旨이며,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착한 일만 받들어 행하는 것은 竺乾太子의 敎化다"라고 했다.[10]

유, 불, 도의 사상은 신라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정치, 사회, 풍속,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조선 초에 형성된 한국의 고전소설에도 이러한 전래의 三敎思想과 무교사상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다. 고전소설은 대개 이들 사상 가운데 어느 한 사상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주로 두세 가지 사상이 襲合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보통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儒家의 經典을 배우고 유교적 가치규범을 따르면서도, 자식을 구할 때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喪을 당하면 道敎의 地官에게 명당자리를 구하고, 병이 나면 巫堂을 불러다 惡鬼를 쫓는 굿을 하는 것처럼 문학에 있어서도 이 네 종교사상은 서로 상호 襲合되어 마찰없이 형상화되

10) 金富軾,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振興王條.
"崔致遠鸞郎碑序文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及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冠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化也"

어 있다. 따라서 어느 작품은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어느 작품은 도교사상을 형상화시킨 소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가지 종교사상이 混融되어 나타난다고 해서 작가가 여러 사상에 동일한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유, 불, 도, 무의 사상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정신이나 작가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특정 사상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로 그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었지만 불교나 도교에 깊이 심취한 작가도 찾아볼 수 있다. 〈九雲夢〉을 지은 金萬重은 당대의 유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불교의 '粗'한 요소는 도교가 되었고, '精'한 요소는 유교가 되었다고 보았으며 불교적 관점에서 儒者나 道士를 末俗을 敎化하기 위해 중국 땅에 나타난 보살의 화신이라고 보았다.[11] 즉 "儒佛元不二"라고 하여 儒佛을 이질적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원리적 동일성을 지녔다고 보았다. 이것은 당대의 사상적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단적인 사상이었다. 〈九雲夢〉은 儒佛仙 三敎의 사상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 주제는 다분히 불교적인 편향성을 나타내 작가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유교나 도교적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열려져 있다. 이처럼 고전소설은 유교 立國이라는 조선사회의 사조를 감안할 때 유교적 사상을 작품에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유교의 현실주의가 드러내는 모순이나 한계를 불교나 도교로서 극복하려는 이면을 찾아볼 수 있다.[12]

유, 불, 도, 무의 네 사상 가운데 巫敎의 경우는 작품 표면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교가 조선시대에 다

11) 金萬重, 西浦慢筆 下, "大抵佛法……(중략)以度中土也"

12) 崔三龍, "고소설의 사상", 韓國古典小說論, 새문사, p. 55.

른 三敎와는 달리 체계적인 사상구조를 갖지 못해서 종교나 사상으로 인정 받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다른 사상과는 달리 우리의 체질 속에 녹아들어 무의식 중에 모든 사상과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유교나 불교를 표방하는 작품의 경우 그것을 엄밀하게 따져보면 무교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유교, 불교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古典小說 背景思想硏究는 네 사상 중에서 어떤 요소가 작품에 나타났는가를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13] 그래서 고전소설에 나타난 儒敎思想은 忠·孝·烈 사상, 階級主義, 慕華思想, 一夫多妻制, 天命思想, 復古主義 등이라고 보았다. 佛敎의 경우는 諸行無常觀, 輪廻還生, 靈驗思想, 來世思想이 나타나고, 道敎의 경우는 神仙思想, 方術이나 道術, 隱逸思想, 巫敎의 경우는 靈驗思想, 靈魂不滅思想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흔히 이런 배경사상 논의는 결국 네 가지 사상의 안배상황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처가 등장하면 불교사상이고, 도사가 등장하면 도교사상이고, 충성이나 효도가 드러나면 유교사상이라 하였다. 이러한 사상연구는 작품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구조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작품을 조각조각 분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나의 문학작품이 有機的 構造를 가진 統一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전소설의 사상은 그 사상을 조각내고 분해해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소설은 어느 특정 종교의 經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이 소설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가를 통해 굴절된 사상체계이지 경전적인 의미의 사상은 아닐 것이다. 소설이 사회현실이나 당대의식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사

13) 朴晟義(1972), 韓國文學背景硏究, 현암사; 朴湧植(1986), 古小說의 原始宗敎思想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회의 복사나 현실사상의 재현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은 허구의 예술이며, 그것은 '있는 현실'과 함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의 사상은 유, 불, 도, 무의 네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각각의 사상을 분해해서 끄집어 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드러내는 세계관의 규명을 통해 고전소설의 사상은 더 분명히 드러나리라 본다.

2) 하늘과 땅의 변증법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天上界에서 得罪하고 인간세상에 謫降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前生身分은 천상계의 星君, 仙女, 龍子, 龍女이다. 곽해룡, 소대성, 정을선은 龍子의 謫降이고, 장백, 유충렬, 장풍운은 천상 星官의 謫降이며, 김진옥, 숙향, 심청은 月宮仙女의 謫降이다. 이들 천상계의 인물인 주인공은 천상계의 질서를 어겨 玉皇上帝에게 죄를 얻어 地上界로 謫降한다.

대부분의 주인공은 그 부모될 사람의 祈子致誠 뒤에 출생한다. 無子한 주인공의 부모는 名山大刹에 가서 불공을 드려 주인공을 잉태하게 된다. 절에서 祈子致誠을 드린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불교에 의지하는 구원사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교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苦海'라 규정하고 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땅이며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불교가 사람의 출생을 도와주는 종교라고는 볼 수 없다. 현실적 삶의 어려움을 神的인 존재에 의지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교적 사고라기 보다는 巫敎的

心性에 더 가깝다. 祈子致誠 뒤에 주인공의 잉태를 암시하는 태몽이 나타나는데 이 태몽부분에서 주인공의 前生身分과 謫降事由가 밝혀진다.

> 일위 션관션네 나려와 부인의 절하고 왈 소주와 쇼녀는 옥황향안젼 시동이옵더니 정월 상월에 죠회홀 씨에 존젼에셔 희롱한 죄로 인간에 젹강하오매 정히 갈 바를 몰나 방황하압더니 화슈암 부체 귀덕에 지시하시와 왓ᄉᆞ오니 부인은 어엽비 역이심을 바라나이다 하고 동ᄌᆞ는 부인 품속으로 다라들고 션녀 하직하고 남녁을 향하야 가는지라

〈金振玉傳〉

여기서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인물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非凡性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천상적 인물인 주인공은 비범성을 지닌 선한 인물이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거나 고난에 부딪힌다. 주인공은 남자일 경우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이나 외적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天定配匹을 만나 혼인을 성취한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끊임없이 천상계의 비호를 받으며 위험에 처할 때마다 천상계에서 예비한 원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는다. 주인공은 높은 벼슬과 지위를 얻고 영화롭게 살다 최후를 맞게 된다. 주인공의 최후는 지상계에서 원래의 처소인 천상계로의 復歸이다. 주인공의 최후는 보통인간과는 달리 꿈에 昇天하라는 계시를 받거나 선관 선녀의 안내를 받으며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의 구조는 천상적 존재가 지상계의 인간으로 출생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부귀영화를 획득한 후 다시 천상계로 복귀하는 還狀構造를 가진다. 즉 〈天上界 - 地上界 - 天上界〉의 環上構造이다. 이러한 〈天 - 地 - 天〉의 環狀構造는 檀君神話를 비롯한 國祖神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14] 檀君神話나 東明王神話는 〈天 - 地 -天〉의 環狀構造를 가지고 있지만 고전소설과는 그 의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檀君神話나 東明王神話의 경우 桓雄이나 解慕漱는 다같이 天帝子로 지상계에 하강하여 나라의 始祖인 단군과 동명왕을 낳는다. 그러나 國祖神話의 경우 천상적 존재가 지상계에 내려오는 것은 '罪'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桓雄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인간 세상이 탐나서(貪求人世) 자발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죄 때문은 아니다.

고전소설의 경우 천상적 존재가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淑香傳〉에서 보면 淑香과 배필 李仙은 천상계의 선녀와 선관이다. 숙향은 "월궁소아로셔 틱을과 글지어 창화ᄒᆞ고 월연단을 도젹ᄒᆞ여 틱을을 준 죄로 인간의 젹강"한다. 숙향은 일찍 부모를 잃고 이선을 찾아 방랑하며 많은 고생을 한다. 결국 숙향과 이선은 부부의 연을 맺고 최후에 천상계로 승천한다.

> 왕이 비로소 씨ᄃᆞ라 왕비로 더부러 ᄒᆞᆫ 환식 먹으니 ᄃᆞ시 말을 못ᄒᆞ여 구름을 타고 공즁으로 올나가니 ᄌᆞ녀등이 발상 거ᄋᆡᄒᆞ여 네로 허장ᄒᆞ고 정슉왕비는 김젼의 냥위를 지셩으로 셤기더니 오년만의 정슉왕비 김상셔 부부를 뫼셔 경하슈의셔 잔치ᄒᆞ며 상슈 구경ᄒᆞ더니 - 이옥

14) 成賢慶(1981), "謫降小說硏究",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영남대학교출판부, p.63.

고 그 네 사롬이 일시의 구름을 타고 공중을 향ᄒᆞ여 올나가니

〈淑香傳〉

이처럼 고전소설의 구조는 천상계와 지상계가 二元的으로 설정되어 있다. 천상계와 지상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環狀的으로 연관되어 서로 오고갈 수 있는 세계이다. 고전소설의 공간의식은 〈天 - 地 - 天〉의 순환의식과 연관되며 이것은 〈過去 - 現在 - 未來〉라는 시간의식과 연관된다.[15] 이러한 천상계와 지상계의 순환은 불교적 윤회사상과는 다른 것이다. 불교적 윤회사상은 영원한 반복의 순환을 말하는데 비해 고전소설의 순환은 一環論에 그친다. 이와같은 〈天 - 地 - 天〉의 環狀的 構造는 그 바탕에 하늘과 땅, 인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宇宙論的 調和思想을 근원적 체험으로 가진 우리 민족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16] 이러한 의식은 물론 儒敎의 天地人 三才思想이나 佛敎의 三世意識과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의식 속에 용해되어 소설화되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로 융합되어 엮어내는 고전소설의 세계에는 궁극적 파탄이나 처절한 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별은 만남으로, 불행은 행운으로 결국은 결핍이 없는 행복한 결말에 이른다.

---

15) 成賢慶(1981), 앞의 글, pp. 162－163

16) 金炯孝(1976), 韓國思想散考, 일지사, p. 112.

Ⅳ. 고전소설과 기독교의 세계관적 거리

1) 천상계와 신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상계는 生老病死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계이며 玉皇上帝에 의해 통치되는 완전무결한 이상세계이다. 천상계는 可視的이고 具體的인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 첩은 옥경 ᄉᆞ람이라 텬부의셔 션공의게 ᄉᆞ환ᄒᆞ옵러니 샹제긔셔 죤공 부부의 정셩을 감동션공의게 명ᄒᆞᄉᆞ 첩을 보ᄂᆡ여 죤공 부부를 청좌홈이라…… 쳐사 부뷔 션녀을 ᄯᆞᆯ아가니 몸이 경협ᄒᆞ야 바람의 불이는듯 구름이 열니고 무리지 달이 쳔상의 써쳐거늘 무심히 행ᄒᆞ야 ᄒᆞᆫ 곳의 다다르니…… 이곳이 옥경이라…… 이옥고 2백 옥문으로 광치조요ᄒᆞ고 풍소소리 들이더니 옥동자 이십 여인이 두상에 계화를 꽂고 청의빅옥교를 미이고 나오며 뒤의 ᄯᅩ 션여 슈십인이 황금교자를 미이고 ᄂᆞ와셔 쳐사 부부 압헤 교자를 놓고 오르기 청ᄒᆞ니…… 교자 놉히 안져 살펴보니 셔편의 ᄒᆞᆫ 누각이 있으니 황금을 기등하고 구슬노 벽을 하였는데 현판의 청영누라 하였고 또 북편을 바라보니 큰 궁궐이 있는데 제명은 통명전이라 하엿스니 옥황제 계신데라
>
> 〈鸞鶴夢〉

통명전, 영관대, 청광루 등의 천상 누각들은 마치 지상계의 장소처럼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이다. 천상계는 추상적 공

간이 아니라 화려한 금은보화로 장식된 곳이며, 즐거운 잔치가 열리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곳이다. 이 천상계를 지배하는 신은 玉皇上帝이다. 옥황상제 밑으로는 부처, 보살, 용왕, 염라대왕, 선관, 선녀 등이 있다. 마치 이조사회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三相六鄕이 지배를 받듯 이들은 모두 옥황상제의 통치를 받는 下位神이다. 천상계는 엄격한 규범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이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천상인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남녀간의 자유로운 애정이나 위계질서를 어긴 사소한 잘못은 곧바로 罪로 규정되고 謫降의 사유가 된다. 이러한 천상계의 윤리규범은 당대 사회의 유교적 규범과 일맥상통한다. 고전소설 속에 그려진 천상계는 질서가 잡힌 이상적이고 완전한 공간으로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지상계의 사회구조나 윤리규범이 반영된 세계이다.

옥황상제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존재이다. 옥황상제는 원래 道敎의 最高神의 명칭이다. 그는 三淸(玉淸, 上淸, 太淸)의 本體인 元始天尊으로 三淸 위의 大羅天에 거하며 時間을 초월하여 因果에 不繫 하고 永遠絶對로 自存한다.[17]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옥황상제는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下位神을 통하여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녀나 도사, 구원자를 보내 돕는다. 옥황상제는 선한 인간이 고난을 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가 승리하게 한다. 즉 옥황상제는 '勸善懲惡'의 수호자인 셈이다. 이러한 옥황상제에 대한 믿음은 불교적 세계관과는 상치된다. 불교는 因果應報思想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 因果論的 輪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능한 초월자에

17) 金勇範(1988), "英雄小說에 나타난 道敎思想 硏究", 한양대 국문과 박사논문, p. 43.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유교에는 일찍부터 天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 그러나 유교의 敬天思想은 하늘을 비인격적인 도덕적 가치기준으로 설정하여 경외하는 것일뿐 절대자에 대한 신앙체계는 없다. 옥황상제는 도교의 最高神 명칭이어서 도교적 神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도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수련에 의해 長生不死하는 神仙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도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종교로 역시 절대자에 대한 신앙은 아니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옥황상제는 어떤 특정 종교의 절대자로 보기는 어렵다. 옥황상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전래된 불교나 유교, 도교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옥황상제는 부처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神格을 발 아래 포용하고 있는 존재이다. 옥황상제는 무교적 존재이기도 하고 유교적 존재이기도 하고 도교적 존재이기도 하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상계나 옥황상제는 우리의 基層意識 속에 자리잡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신앙관념과 여러 종교사상의 神概念이 합쳐져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정신사에서 옥황상제는 여러 神을 총괄하는 最高神으로 숭상되었다. 이러한 神觀念에 깔려 있는 사상은 결국 엄밀히 말하면 多神論的(Polytheistic)이라 할 수 있다. 옥황상제는 절대적인 唯一神이 아니라 여러 神格의 統合體일 뿐이다. 아울러 옥황상제는 세상만물의 질서를 주관하는 主宰者이기는 하지만 천지만물을 만든 創造者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옥황상제는 현실문제, 지상계의 삶에 참여하는 동참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지상계의 선인이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위기를 겪을 때 옥황상제는 원조자를 보내 돕는다. 그러나 옥황상제는 지상계의 삶의 문제에 대해 일종의 도덕적 원리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무관심하

다. 옥황상제는 '秩序守護者'일 뿐 '救世主'는 아니다.

2) 지상계와 죄

고전소설에서 지상계는 천상계의 인물이 죄를 짓고 유배 오는 땅이다. 지상계는 罪責과 贖罪의 땅이며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세계이다. 지상계는 生老病死가 존재하며 善惡, 貧富, 貴賤이 있는 불완전한 세계이다. 지상계는 천상인에게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한때 스쳐가는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에서 이 지상계의 삶은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지상계는 결핍과 고난이 있는 '죄의 땅'이라기 보다 오히려 주인공의 꿈을 실현하는 '복락의 땅'으로 그려진다.

죄로 인해 지상계에 謫降한 주인공은 전혀 죄의식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천상계에서 주인공이 지은 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男女相戱이다. 다음으로 천상물건을 사사로이 처분한 죄와 비를 잘못 준 죄, 다툰 죄, 세상부귀를 흠모한 죄, 시각 잘못 아뢴 죄 등이다.

> 셔왕모 쌀이옵더니 반도진상 가난 길의 옥진비자를 만나 두리 수작ᄒᆞ여 숩더니 시가 좀 어기여삽기로 상제게 득죄ᄒᆞ야 인간의 ᄂᆡ치시ᄆᆡ
>
> 〈沈淸傳〉

> 쇼ᄌᆞ는 동히룡ᄌᆞ 옵더니 비 그릇 쥰 죄로 샹졔게셔 ᄂᆡ치시ᄆᆡ 갈 바를 모로옵더니 청룡ᄉᆞ 부체 지시ᄒᆞ시므로 왓ᄉᆞ오니 어엿비 넉이쇼서 ᄒᆞ고 품속으로 들거놀
>
> 〈蘇大成傳〉

소자는 남해룡자옵더니 부왕을 뫼시고 텬궁에 갓삽다가 서방 금성 차지한 태백으로 부러 백학승부를 닷토다가 상제 노하사 태백은 적거하고 서자는 인간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몰나 주저하옵더니

〈郭海龍傳〉

이들이 천상계에서 저지른 죄는 惡이라기 보다는 실수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천상계의 질서나 규범을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로 규정된 것이다. 특히 남녀관계에 관한 엄격성은 다분히 유교적 규범성과 상통한다. 그러면서도 천상에서 눈주어 희롱한 것이 죄가 되어 지상계에 적강한 주인공 남녀는 하늘의 도움 속에 난관을 극복하고 애정을 성취하는 이율배반적인 양상을 띤다. 천상계에서 부정되고 죄가 되었던 남녀애정은 지상계에서 긍정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천상계의 죄가 지상계의 축복이 되는 이런 양면성은 결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죄'의 성격을 드러낸다. 근본적으로 '原罪意識'이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다만 일시적인 실수에 의해 죄를 범할 뿐이다. 천상계에서 적강한 주인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물론 회개나 반성도 없다. 이것은 지상계에 적강한 이후 주인공들이 천상계의 삶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고 애착을 나타내지도 않는 것과 연결된다. 죄의 결과로 내려 온 지상계인데 자기 삶의 원천인 천상계를 그리워하기 보다는 지상계의 생활에 만족해 하며 지상계의 삶에 몰입한다. 초년의 고생이나 역경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곧 주인공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하게 되고 안락한 생을 영위한다. 지상계는 유배지적인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오히려 충족된 삶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지상계가 유배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땅이라기 보다는

복락의 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상계가 福地的 성격을 갖는 것은 유교적 현실주의와 立身功名, 富貴榮達意識의 영향이고, 流配地的 성격을 갖는 것은 불교적인 輪廻思想과 因果應報思想, 來世希求思想, 그리고 도교의 無爲自然, 不老長生의 神仙思想의 영향이라고 보기도 한다.[18]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전소설에 나타난 지상계의 이중적 성격은 결국 인간의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결여 내지는 원죄의식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다. 천상계가 낙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속죄하려는 의식은 없다. 서구문학에서와 같은 失樂園意識은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천상계는 소설의 결말에서 주인공이 승천해서 돌아가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소설의 마무리로 간략하게 제시될 뿐이다. 소설에 나타난 비중을 볼 때도 지상계의 삶이 천상계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고전소설에 나타난 구원관은 來世的이라기 보다 現世的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욕망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보상받고 여기서 부귀공명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천상계는 지상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승천한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어떤 삶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이 땅에서 잘살다 승천한 것으로 끝난다. 불교적 성격이 강한 〈九雲夢〉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천상계로 복귀한 性眞이 解脫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타의 고전소설의 경우 천상계를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來世的인 救援觀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18) 金仙雅(1980), "古小說에 나타난 罪와 地上의 意味", 청파문학 13, 숙명여대, p. 129.

V. 맺음말

이 글은 국문학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적 조망의 가능성을 점쳐 본 시론적인 연구이다. 앞으로 더 보완되고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국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멀리 바라보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문학을 기독교와 연관시킨 연구는 주로 開化期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국문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조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장르가 균형있게 연구되야 한다. 구비문학, 한문학, 고전시가, 고전소설등 고전문학 분야도 기독교적인 조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문학사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異敎的 세계관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기독교적인 국문학 연구가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이으면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韓國文學史를 다시 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 이 길은 요원하게 느껴지지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문학과 인접한 학문의 기독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전문학의 경우 한국역사, 한국철학, 민속학 등의 인접학문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국문학에 대한 기독교적인 조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접학문에 대한 기독교적인 연구가 병행되어 상호 연관 속에서 연구가 통합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이러한 학문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은 거의 없다.[19]

19) 역사학 분야에 李萬烈의 〈韓國基督敎와 歷史意識〉(지식산업사, 1981)이 있다.

기독교적인 국문학 연구는 단순히 문학연구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한국 기독교문화 창조의 指標를 제시하고 原動力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문학 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규명할 수 있다면, 기독교문화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기독교문화의 창조적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인다.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아득하기는 해도 순례의 끝이 보이는 길이다.